



**CJ대한통운, 이제혁 패럴림픽 동메달 포상식**

CJ대한통운이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동계 패럴림픽 스노보드 크로스(SB-LL2)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이제혁 선수를 위해 포상식을 열고 노고를 치하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 본사에서 신영수 대표를 비롯해 정희영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김충식 서울특별시장애인스키협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상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CJ대한통운



**LG헬로비전, 부천대와 AI·웹툰 기반 인재 양성**

LG헬로비전은 부천대학교와 지역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측은 교육과 콘텐츠, 산업을 연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AI와 웹툰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교육·창업·콘텐츠 분야 공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LG헬로비전



**HLB에프앤비, 홍삼빌에 하얏트 언스크립트 유치**

HLB그룹의 F&B 전문 기업인 HLB에프앤비는 위탁 운영 중인 '홍삼빌'에 글로벌 호텔 하얏트의 업스케일 컬렉션 브랜드 '언스크립트 바이 하얏트' 유치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언스크립트 바이 하얏트는 숙박 브랜드로, 개별 호텔의 고유한 개성과 지역적 특색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예약·멤버십 시스템을 결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HLB에프앤비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북미 부동산 개발 확대**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과 뉴저지를 방문해 현지 주요 개발사 및 정계인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북미 부동산 개발사업 확대에 나섰다. 정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미국 주요 디벨로퍼인 쿠슈너 컴퍼니, 톨 브러더스 시티 리빙, 이제이엠이(EJM) 관계자들과 만나 뉴욕·뉴저지 지역 주거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 및 개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대우건설

**인사**

◆외교부 △동남아2과장 송승민 △중미과장 송재우 △국립외교원 직무연수과장 김종명

**부음**

▲김현수씨 별세, 박광식(전 민형배 국회의원 보좌관)씨 빙부상=23일 오전, 광주 광산구 만평장례식장 301호, 발인 25일. 062-611-0000

**LG생활건강, '키텐셜·어반버스터즈' 獨 디자인상 2관왕**

iF 디자인 어워드서 3년 연속 수상  
건기식 브랜드 2개 작품 본상 받아  
고객 편의 높인 혁신 디자인 호평



어반버스터즈(왼쪽)와 키텐셜(오른쪽).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이 세계 최고 디자인 공모전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2개 작품이 본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다.

이 행사는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전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3대 디자인 상으로 손꼽힌다. 올해는 총 68개 국가에서 1만여 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부문에서 키텐셜, 어반버스터즈 두 작품으로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키텐셜'은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단정한 로고, 아이들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친근하게 표현한 캐릭터, 중요 정보를 한 눈에 보여주는 가독성 높은 제품 겉면이 조화를 이뤘다. 또 아이들이 섭취하기 쉬운 제형과 휴대·보관이 용이한 포장 구조를 통해 한층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어반버스터즈' 제품군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

력 개선 등 각 제품 경쟁력을 완성도 높은 캐릭터로 시각화했다. 특히 거리 예술(그래피티)에서 영감을 받은 글자 디자인도 선보이는 등 기존 건강 기능식품 형식을 파괴하고 기능성을 직관적으로 요구한 점이 돋보였다.

LG생활건강디자인센터 관계자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정진한 결과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 2관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신뢰, 즐거움, 편리함을 제공하는 디자인으로 계속 도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안정호 시몬스 대표, 7년째 환아 지원**

삼성서울병원에 3억 쾌척  
누적 기부금 21억 달해

안정호 시몬스 대표(사진)가 소아암 등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을 7년째 보듬고 있다.

시몬스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 환아들을 위해 치료비 3억원을 쾌척했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7년째 이어진 기부금은 총 21억원에 달한다.

안정호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체계가 위기에 빠지자 삼성서울병원에 3억원을 기부하며 나눔의 물꼬를 텄다.

시몬스의 행보 덕분에 소아암 및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230여 명의 환아들이 치료를 받고 꿈과 희망을 되찾았다. 시몬스의 기부는 2023년 삼성서울병원이 선정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의 빠른 정착에 기여했다. 같은 해 소아청소년 통합케어 서비스 출범에도 힘을 보탰다.



안강모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센터장은 "시몬스의 꾸준한 지원은 단순한 치료비 기부에 그치지 않고 병원 내 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큰 힘이 됐다"면서 "이는 기업의 사회공헌이 소아청소년 의료의 성장과 발전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고 전했다.

안 대표는 "2020년 당시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시작한 기부가 어느덧 7년째 이어지면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와 통합케어 서비스 출범에도 힘을 보탰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역할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반을 함께 만들어 가는 데 있는 만큼 앞으로도 환아와 가족 곁에서 이들이 삶의 꿈과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소사랑나눔재단, 봄맞이 미니 체육대회**

파인트리움서 아동 28명과 진행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의 중소기업 연합봉사단이 지난 21일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파인트리움을 방문해 '봄맞이 미니 체육대회'를 열었다.

23일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따르면 파인트리움 마당에서 진행된 미니 체육대회는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신발 던지기, 줄바트런, 색판 뒤집기 등 19명의 봉사자와 28명의 아동들이 함께 다양한 게임에 참여해 활기찬 봄의 시작을 맞이했다.

중기업사랑나눔재단은 2019년 파인트리움에 운동화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물품 후원과 아동들을 위한 봉사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지난 21일 인천 부평 파인트리움에서 '봄맞이 미니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올해도 아동들을 위한 사랑 나눔에 중소기업계가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홈쇼핑, 사회공헌 활동 더욱 확대한다**

중소·소상공인 종합 지원 체계 구축

홈쇼핑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한다.

기존의 단순한 판로 지원을 넘어 인식 개선, 장학 지원, 근로환경 개선, 문화·복지 확대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면서다. 특히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 중소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확대해 정책 제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23일 홈쇼핑에 따르면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우수 중소기업 사례 발굴과 홍보,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중소기업도 좋은 일자리'라는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나선다. 이와 함께 종사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 사업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근속자 및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근로환경 및 후생 개선 지원도 늘린다.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근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돕는다. 문화·복지 영역에서도 지원을 이어간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문화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홈쇼핑은 앞서 방송기술 지원과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방송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해 협력사의 콘텐츠 경쟁력과 전문성 향상에도 힘써왔다.

/김승호 기자

**동아오츠카, 상주오픈 테니스 챔피언십**

28~29일 상주·문경서 대회 개최

동아오츠카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상주시민운동장과 문경 영강체육공원에서 '2026포카리스웨트 상주오픈테니스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포카리스웨트가 주최하고 상주문경스포츠협회, 상주시테니스협회, 한국테니스발전협의회가 주관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주시, 상주시체육회, 상주시의회, 문경테니스협회가 후원한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테니스 종목

활성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대회에는 개나리부(여자 신인) 144팀, 챌린저부(남자 신인) 96팀, 국화부 64팀 등 총 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참가자들에게는 포카리스웨트 썬캡과 보틀, 분발 제품을 비롯해 동아제약 박카스, 오쏘몰, 스킨가 등 다양한 기념품이 증정된다. 또한 동아에코팩이 협찬사로 참여하며, 이탈리아 스포츠 브랜드 디아도라가 용품 후원사로 참여해 보스턴 백과 라켓백 등을 부상으로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내달 '다락층고 상향 공청회' 개최**

지식산업센터연합회, 공론의 장 마련

(사)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와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다락설치기준 현실화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다락층고 상향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25년 11월 황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데 따라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대중 세종대 교수가 '지식산업센터 다락 층고 규제 개선 필요성과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현진 기자 ih@